

“AI·코딩부터 K팝까지, 한국 청춘이 전한 희망”

GIST, 라오스·캄보디아에 IT 봉사단 파견

- GIST 학사과정생 28명, 월드프렌즈코리아(WFK) IT 봉사단으로 파견돼 현지 학생들에게 3주간 IT·한국어·한국문화 교육... 2014년부터 총 172명 파견
- (재)지스트발전재단은 현지 교육 기관에 500만 원 상당 물품 기부도... 봉사단 참가 서승완 학생 “우리가 나눈 것보다 더 많은 것을 배우고 돌아온 값진 시간”



▲ 2025년 월드프렌즈코리아(WFK) IT봉사단이 출국 전 공항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라오스 파견 봉사단과 캄보디아 파견 봉사단

광주과학기술원(GIST, 총장 임기철)은 월드프렌즈코리아(WFK) IT 봉사단으로 선발된 학부생 28명이 여름 방학 중 라오스와 캄보디아에 파견돼 정보기술 교육과 문화 교류를 통한 사회공헌 활동을 펼치고, 8월 초 귀국했다고 밝혔다.

이번 봉사단 파견은 GIST가 보유한 IT 전문성과 청년 인재의 역량을 바탕으로 개발도상국의 교육 격차 해소에 기여하고, 학생들에게는 글로벌 시민으로서의 책임감과 나눔의 가치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라오스에는 총 16명의 학생이 4개 팀으로 나뉘어, 7월 14일(월)부터 8월 1일(금)까지 3주간 수도 비엔티안과 방비엥 지역에 파견됐다. 이들은 8월 3일(일) 오전 귀국했다.

봉사단은 라오스 수도인 비엔티안에 위치한 ▲비엔티안 수도 기술개발센터(Vientiane Capital Skills Development Center)와 ▲방비엥 에스닉 스쿨(Vangvieng Ethnic School)에서 현지 중·고등학생 및 공무원 100여 명을 대상으로 ▲IT(3D 그래픽 디자인·AI·홈페이지 제작 프로젝트·MS오피스·코딩) ▲한국문화(K-POP·음식 만들기·전통놀이 등) ▲한국어 교육을 진행했다.



▲ 2025년 월드프렌즈코리아 IT봉사단이 파견 기관(방비엥 에스닉 스쿨, 사사르담 고등학교)에서 현지 학생들을 대상으로 수업을 하고 있다.

‘Helper’s High 팀(황성빈 팀장)’과 ‘LOKO 팀(임영준 팀장)’은 비엔티안 수도 기술개발센터에서 3D 그래픽 디자인, AI, 홈페이지 제작 등을 중심으로 교육을 진행했으며, **‘SARAD 팀(서승완 팀장)’과 ‘라오스냅 팀(이나윤 팀장)’**은 방비엥 에스닉 스쿨에서 MS오피스, 영상편집, 코딩 등을 가르쳤다.

서승완 학생은 “언어 장벽은 있었지만 이미지 자료와 다양한 도구를 활용해 효과적으로 소통할 수 있었고, 현지 학생들의 열정적인 반응에 큰 보람을 느꼈다”며 “우리가 나눈 것보다 더 많은 것을 배우고 돌아온 값진 시간이었다”고 소감을 전했다.

캄보디아에는 12명의 학생이 3개 팀으로 구성돼, 7월 16일(수)부터 8월 5일(화)까지 3주간 시엠립(Siem Reap) 지역의 ▲사사르담 고등학교(Sasarsdam High School)에서 교육 봉사를 진행하고, 8월 6일(수) 오전 귀국했다.

‘G.I.S.T 팀(오승환 팀장)’, ‘G봉이 팀(박찬범 팀장)’, ‘생생이 팀(김연주 팀장)’은 사사르담 고등학교 재학생 92명을 대상으로 AI, 파이썬, 3D 프린터 활용 교육을 포함한 IT 강의와 더불어 K-pop, 음식 만들기, 전통놀이 등 한국문화와 한국어 교육을 진행했다.

현지의 열악한 인터넷 환경과 고온의 날씨 속에서도 열의를 잃지 않고 수업을 이어 간 김연주 학생은 “언어와 환경의 제약을 넘어선 교감은 우리 모두에게 깊은 울림과 배움으로 남았다”고 밝혔다.



▲ (재)지스트발전재단이 2025년 월드프렌즈코리아 IT봉사단 파견 기관(방비엥 에스닉 스쿨, 사사르담 고등학교)에 학습 지원 물품을 기증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GIST는 이번 해외 파견을 계기로 현지 기관과의 지속적인 협력 기반도 강화하고 있다. 이를 위해 정용화 대외부총장은 7월 22일(화)부터 27일(일)까지 4박 6일 일정으로 라오스와 캄보디아를 방문했다.



▲ 정용화 대외부총장이 캄보디아 사사르담 고등학교 교장에게 기부 문서를 전달하고 있다.

정 부총장은 라오스 현지 교육 현장을 방문해 봉사단 학생들을 격려하고, 기부금 전달식에 참석했다. 이후 캄보디아 사사르담 고등학교에서는 관계자들과 교류협력 확대 및 교육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정용화 대외부총장은 "GIST 학생들이 국경을 넘어 IT 지식 나눔을 실천하며 글로벌 인재로 성장하는 모습이 자랑스롭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국제 교류와 사회공헌 활동을 통해 GIST의 글로벌 리더십을 확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GIST 월드프렌즈코리아 IT봉사단과 정용화 대외부총장이 라오스 비엔티안 수도 기술개발센터 기관장에게 학습 지원 물품을 기증하는 장면이 현지 언론을 통해 보도되고 있다.

한편, (재)지스트발전재단은 봉사단 파견과 연계해, **학업에 대한 열의는 크지만 교육 환경이 열악한 라오스와 캄보디아의 교육 기관에 총 500만 원 상당의 물품(휴대용 선풍기 200대 및 학용품 등)을 기부했다.**

(재)지스트발전재단 김해명 이사장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배움에 대한 열정을 잃지 않는 현지 학생들에게 작은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재)지스트발전재단은 **현지의 수요를 꾸준히 파악하고 교육환경 개선과 학생 성장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적극 모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임기철 총장은 “해외 봉사활동은 학생들이 다양한 문화를 이해하고, 진심을 다해 현지와 소통하며 글로벌 역량을 키우는 소중한 기회”라며, “앞으로도 GIST는 **학생들이 세계를 무대로 나눔을 실천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다양한 국제 교류와 봉사 기회를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GIST는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과 공동으로 2014년 베트남을 시작으로, 2015~2019년 몰도바, 2020년 파나마(온라인 교육), 2021년 부탄·베트남(온라인 교육), 2023~2024년 라오스, 그리고 올해 라오스·캄보디아에 월드프렌즈 IT 봉사단을 파견했다. **지금까지 누적 파견 인원은 총 172명**에 달한다.